**교제와 나눔**

**\*\*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ㆍ토요기도회:** 매주 토요일 07시 Teestube

**ㆍ주일예배 장소 및 시간: Theodor-Fliedner Saal, 12시**

**ㆍ여선교회월례회:** 오늘 예배 후 예배당

**ㆍ매일성경 7,8월호 받아가세요.**

**ㆍ연합어린이 여름캠프:** 7월 19일(목)~21일(토) DJH Neuss-Uedesheim

Macherscheider Str. 109, 41468 Neuss

7월 17일(화) 마지막 준비 모임

**ㆍ클래식음악산책:** 7월 22일(주일) 14:30 부터 3회, Teestube, 강사-강혜경 교우

**ㆍ이스라엘 성지순례 참가신청:** 7월 15일 주일까지 최종 마감(11월 19-24 예정)

 여행경비: 20명일 경우-650유로, 30명일 경우-580유로(항공요금 불포함)

**ㆍ생일:** 이한나, Joanna Perk, 이윤경

**◆말씀일기 일정**

일/딤후4:9-22 월/시편1101:1-7 화/시111:1-10 수/시112:1-10

목/시113:1-9 금/시114:1-8 토/시115:1-18 일/시116:1-11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47독)**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7월 8일** | **7월 15일** | **7월 22일** | **7월 29일** |
| **예배기도** | 유근임 | 송하임  | 신상희 | 정수연 |
| **말씀일기** | 배영빈 | 백윤정 | 김종권 | 손민해 |
| **안내위원** | 한상철, 예배부 |
| **헌금위원** | 백능현, 장혜진 |
| **애찬봉사** | 밥상 셋 | 나라주일 | 밥상 넷 | 밥상 다섯 |

**35-27호 2018년 7월 8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골3:14)

주일예배: 12:00

유초등부예배: 12:00

청소년부예배: 12:00

토요기도회:07:00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Mike Lee

☏ 0211-4166 3284 HP. 0157-7388 7498

**교육/ 이재용 목사** HP. 0157-5346 6942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 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오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예배부름/Eingangsgebet …………………………………………………………………… | 다함께인도자 |
| ※찬송/Gemeindelied …………………………… 26장 ………………….…………… | 다함께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 다함께 |
| 성시교독/Wechselwort ……………….. 교독문 27번……………................ | 다함께 |
| 찬송/Gemeindelied …………......………… 90장 …………………………… | 다함께 |
| 기도/Gebet ………........………………………………………………............................ | 유근임 집사 |
| 말씀일기/Bibeltagebuch …………………………………………….............................찬양/Loblied ......…………………………….......………………………….......………… | 배영빈 교우찬 양 대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 출 20:14 …..….....……..………… | 다함께 |
| 설교/Predigt ………………… **7. 간음하지 말라** ....………………… | 손교훈 목사 |
| 찬송/Gemeindelied ……….…………….… 342장 ……….……………….……합심기도/Gebet ……………………………………………………………………………봉헌/Kollekte …………………………………………………………………………………… | 다 함 께다함께다함께 |
|  교제/Bekanntmachung …….....................................................…………................ | 다 함 께 |
| ※주기도송/Vaterunser ………………………………………......................…………… | 다함께 |
| ※축도/Segen ……………………………………………………………………...................... | 손교훈 목사 |

**※는 함께 일어섭니다.**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딤후4:9-22 '어서 오라' ◈**

서로 짐만 되는 관계는 좋지 않다.

하지만 좋은 관계는 서로 신세 질 수 있는 사이다.

사사로운 부탁을 할 수 있고, 그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는...

진짜 좋은 관계는 멀리 있어도 늘 마음 속에 있고,

그렇기에 속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런 사이였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고 싶으니 어서 오라고 하며,

오는 길에 마가도 데리고 오라고 하고,

드로아 가보의 집에 들러서 거기 둔 겉옷도 가져다 달라고,

또한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으로 가져다 달라고

시시콜콜 사사로이 부탁을 한다.

죽음을 무릅쓰고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오직 주님이 기뻐하실 일만을 궁리하며 살면서도,

같은 길 가는 동역자, 형제 자매와의 이런저런 사귐을 통해

생의 활력을 얻기를 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한편 위로 받고, 또 한편 격려를 받는다.

어서 오라고, 보고 싶다고, 오는 길에 뭐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내 모습이 꼭 초라한 것 만은 아니라고,

바울 선배가 몸으로 가르쳐 주는 것 같다.

외로움을 흘리고 다닌 것 같았던 한 동안의 시간 속에서

이제는 그거 극복해야지 하는 생각에,

보고 싶단 말 절대 안 하리라, 먼저 연락하는 일 삼가리라

다짐했던 극단적인 시간들도 필요한 한 과정이었을까?

‘친구야, 어서 와라, 보고 싶다, 꼭 만나자.

오는 길에 왜 그 친구도 함께, 좋은 책도 같이...부탁해.’